기숙형 高校 전국단위 선발 제한 추진

장성고 영향 받을까

"지역학생 소외 안되게"

내년부터 기숙형 공립고, 자율학교 등의 타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들 학교 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 학부모들은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토 배경은=지난 15일 처음으로 공개된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지역은 장성군과 경남 거창군이었다. 군 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대도시권을 제치고 전국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높은 성적을 '견인'한 주인공은 장성고와 경남 거창고이다. 두 학교는 모두 자율학교이면서 기숙사를 갖춘 학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율학교'는 전국 단위 학생 선발이 가능한 학교로, 여기에 기숙사까지 있으면 전국에서 우수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우수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학생,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농어촌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학생들로 인해 정작 해당 지역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바뀌나=학생 선발을 제한하는 방식은 전국 단위로 선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군 또는 시도 단위로 선발 비율을 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선발 제한이 검토되는 학교는 내년 3월 개교하는 기숙형 공립고 82곳도 포함된다. 전남에선 담양고와 곡성고, 구례고, 고흥고, 보성고, 화순고, 장흥고, 도초고, 강진고, 해남고, 영암고, 현경고, 함평여고, 영광고, 문향고, 완도고 등 16곳이며, 광주에는 한 곳도 없다.

▲효과는 "글쎄?"=전교생이 800여명 정도인 장성고의 장성 출신 학생 비율은 50%대에 육박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남지역 학생들로 채워져 있다. 장성고는 그나마 2008학년도부터 정부의 1군·1우수고로 선정된 뒤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해 졌지만, 현재 1~2학년 중 30% 정도만 타 지역 학생이다. 이마저도 광주를 제외하면 외지 학생은 학년당 5% 수준에 불과하다. 또, 자율형 학교는 전남에만 모두 32곳에 이르는 만큼 자율형 학교 때문에 성적이 향상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게 장성고의 입장이다.

장성고 반옥진 교장은 "이번에 발표된 수능 5년간 성적은 모두 전남지역 학생들이 이뤄낸 성과"라면서 "교과부에서 학생 선발을 제한하더라도 장성고의 성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충장로 4·5가 리모델링 전통 문양 활용 특화거리로

사업비 13억…5월 착공

광주시 동구 충장로(4·5가)가 전통문양을 활용한 특화거리로 리모델링된다.

광주시 동구는 20일 '충장로 4~5가 특화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낡고 파손된 노면을 전통문양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해 이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키로 했다.

노면 리모델링과 가로등 신설 등이 이뤄지는 지역은 충장로 4가 24번지 일원(중앙로~옛 조흥은행, 142·8m)과 5가 49번지 일원(옛 조흥은행~구성로~독립로, 448·8m)이다.

동구는 주단과 귀금속 상가 등 혼수와 관련된 도·소매 상점이 밀집한 충장로 4~5가 상권의 특성에 맞게 창살문양 등을 적용해 거리를 리모델링한다는 방침이다.

충장로 5가 송월타워 앞은 화강 판석을 사용해 국화문양의 거리를, 4가 중앙부분은 화강판석을 이용해 촉대구살 창살 무늬 모형으로 만드는 등 파손된 노면을 전통 문양을 사용해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동구는 또 이 일대가 야간에는 어둡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라 가로등 72개를 신설해 밝고, 쇼핑하기 좋은 분위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충장로 5가 특화거리 조감도

충장로 4~5가 특화거리 조성 공사는 다음달 초순에 시작돼 8월 초순경에 완공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3억원 규모다.

동구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연계해 문화의 한 축으로서 충장로 거리를 조성하고, 침체된 옛 도심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특화 거리 조성을 통해 옛 도심 충장로가 다시 활기를 찾고, 아시아문화의 전당과 함께 문화의 한 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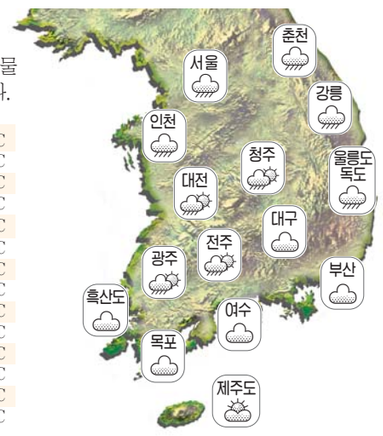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3분 해짐 19시 10분 달뜸 03시 25분 달짐 15시 14분

분주해진 농촌 들녘

대체로 흐리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2.0~4.0m로 높게 일겠다.

광 주	흐리고 한때 비	11/15℃
목 포	흐림	12/14℃
여 수	흐림	12/16℃
완 도	흐림	13/16℃
구 례	흐리고 한때 비	11/16℃
해 남	흐림	12/15℃
장 흥	흐림	12/16℃
고 흥	흐림	11/17℃
순 천	흐리고 한때 비	12/17℃
영 광	흐림	11/14℃
진 도	흐림	12/15℃
전 주	흐리고 한때 비	12/15℃
남 원	흐리고 한때 비	10/15℃
흑산도	흐림	10/14℃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북서	2.0~4.0m	목포	11:28	04:41
먼바다	남서~북서	3.0~4.0m		23:51	17:08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2.0~4.0m	여수	06:42	00:15
먼바다	서~북서	2.0~4.0m		18:56	12:5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날 씨						
최저/최고	9/18	7/23	9/23	11/16	7/19	7/21

강풍… 비… 비닐하우스 100여동 파손

광주·전남 시설물 피해…항공기·여객선 운항 차질

20일 광주·전남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 비닐하우스 100여동이 파손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광주·전남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고흥과 보성·장흥·해남·완도 등 5개 군에는 호우주부의가 각각 발효됐으며, 평균 27.2㎜의 비가 내렸다.

강풍으로 인해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비닐하우스 88동의 비닐이 찢겨나가고 3동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 이날 오후 1시1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장산초등학교 체육관 지붕 측면에서 지붕을 감싼 철제 마감재 일부가 떨어져 나갔으며, 광주시 동구 산수동 산수오거리 인도에서는 상가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어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서는 오전 8시40분 광주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OZ8141편을 비롯해 이날 오후 5시 현재 모두 8편이 결항했다. 전남 지역 49개 항로, 여객선 89척 중 흑산도와 홍도 방면, 여수 거문도 방면 등 43개 항로에서 여객선 63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지역별 강우량은 장흥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보성 47㎜ ▲해남 45.6㎜ ▲완도 39.8㎜ 순이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남동부 해역에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내렸다"며 "21일 새벽부터 점차 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강풍에 떨어져나간 체육관 외벽 20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장산초등학교 체육관 지붕 측면의 마감재와 외벽 일부가 강풍에 의해 떨어져 나가자 119구조대가 출동,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체벌 대신 상·벌점 '그린 마일리지' 도입

전남도교육청

전남지역 학생들에게 체벌 대신 벌점을 주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 운영된다.

전남도교육청은 19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다음 달부터 도내 115개교에서 그린 마일리지제(상·벌점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학교 생활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흡연이나 음주 등 규정 위반 때 벌점을 주고 교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점수(償點)'를 주는 것이다.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선도위원회 회부 등 징계를 받게 되고 상점이 많아지면 상품이나 선행상을 주도록 했다.

교사가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각 학생의 상·벌점을 입력하면 곧바로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SMS)로 통보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 상임행사위원장에 안성례씨

29주년 행사위 23일 출범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29주년 행사위) 출범식이 오는 23일 치러진다.

20일 29주년 행사위에 따르면 이날 5월 관련단체·교육·여성·학생·진보연대·농민·문화·환경·노동·종교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동행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29주년 행사위는 또 '(사)5월 어머니의 집' 안성례 회장〈사진〉을 상임행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안성례 상임행사위원장은 "이번 슬로건의 의미를 살려 29주년 기념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